

송년특집 - 2003년 화학산업 10대 뉴스⑦

SK글로벌 분식회계 적발 “SK그룹 휘청”

정유업계 1위의 자존심이 여지없이 무너졌다.

SK는 1조5000억원대에 달하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 등에 연루돼 최태원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손길승 회장이 구속됐으며, 임원 11명도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 또 출자전환과 관련한 은행권의 여신중단 조치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으며, 원유 도입마저 어려움을 겪는 등 2003년 사상 최대의 위기를 겪었다.



손길승 SK그룹 회장

SK는 연초 정제마진 개선에 따른 업황 호조와 환율안정 등으로 8000억-9000억원 정도의 흑자를 기대했으나 SK글로벌 사태에 따른 지분법 평가 손실 등의 영향으로 4000억-5000억원 가량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SK를 시발점으로 정치권의 비자금 수사가 이어지면서 재벌 기업의 수사로 확대되는 전초가 됐다.

SK의 전 구조조정본부장이 한나라당에 대선자금 100억원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전달과정이 지극히 비밀스럽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망신을 당했다.

최근에는 삼성과 LG 등 거대 재벌집단들이 100억-150억원을 한나라당에 지급한 것이 들통나는 등 검찰의 비자금 수사가 확대되면서 해당그룹에 속한 화학기업들이 안전부절하고 있으며 내부부당거래와 관련한 의혹도 받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2/22>